

技術士의 活用과 技術用役

李 敦 永*

(東亞應用地質硏究院代表理事)

現在 우리는 그어느때보다도 科學技術者의 活用과 必要性은 크다고 生覺합니다. 온國民은 生活의 科學化로서 尤甚課業을 完遂하고 國土開發과 工業立國을 爲하여 諸般建設事業에 邁進하고 있는 이때 科學技術의 總動員은 必然的이며 技術士는 그에 主役을 擔當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現實은 몇사람 되지않는 技術士도 제대로 活用되지 않고있는 實情이여서 本人은 技術士의 積極活用과 參與를 要求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技術士의 現況을 살피보면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등록된 數는 293名이나, 技術用役에 從事하는 사람은 不過 15%에 該當하는 45名뿐이며, 나머지는 公務員 또는 國營機關에 138名, 其他職에 110名이 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反해서 인접 日本國의 例를보면 登錄된 技術士가 約 8,200名이며 其中 大多數가 用役業務에 從事하여 年間 數10億圓의 用役受託을 하는等 積極적인 參與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用役團體의 重要位置는 技術士가 代表하고 있으며, 用役團體의 數도 數百個로 알고 있습니다.

勿論 우리나라도 등록된 用役業體가 60餘個이며 未登錄業體도 相當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用役業에 從事하는 技術士가 不過 45名이므로 過半數의 用役業體가 常任技術士를 한사람도 保有하지 못한뿐아니라 同等한 有資格技術者도 實際로 없는形便입니다. 우리나라와 日本을 比較하면 우리나라는 人口 10萬名에 技術士 1名도 查 못되는데 日本은 10萬名에 8名뿐이니 이러한 點을 감안하더라도 技術士의 美

成은 勿論, 하루速히 모든 技術士가 本然의 業務에 專念할수 있는 制度와 保障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그렇게 되는날 自然的으로 技術士는 늘 어가고 不實 技術用役은 도태하게 될것입니다.

其間 實施한 政府事業이나, 個人事業에 많은 部分이 不實하였던 原因을 살피보면 技術不足, 또는 技術不活用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技術缺乏에서 오는 손실은 會計나 經理面에서 오는 그것에 比할수 없는 致命的인 損失을 招來함을 우리는 알아야할것입니다. 多幸히 이點을 認識하고 政府에서는 技術用役育成法을 制定하고 그施行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法이 있어도 그 運轉이 잘되고 國民 모두가 잘 지켜야 實效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지난 例를 보면 技術士法에 依하여 事務所를 開設하고 技術士가 鑑定한 石山 評價를 公認할수 없다고, 認定치 않으려는 事例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사람들이 技術者와 技能工을 混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技術用役業體登錄基準에 技術職의 補充을 技能職으로 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現在 該當分野의 專門常任技術者한사람 없으면서도 所謂 技術用役業體로 차치하며 用役業을 行하는 모순은 國家發展에 큰 被害를 가져올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은 새로 施行된 用役法에 依하여 시정될줄로 믿으며, 많은 技術士가 活潑히 本然의 業務에 從事하게 되리라고 믿고, 우리 技術士들의 積極적인 參與를 권하는 바입니다. 특히 技術用役業은 技術士가 代表하여야 하며, 技術用役에 對한 올바른 認識이 必要합니다.

* 技術士：(應理學部門)